

애니메이션에서 재현된 도교(道敎)와 신도(神道)의 신인관계(神人關係)에 대한 비교 분석 -〈일인지하, 2016〉,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1〉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od-man Relations of Taoism and Shinto implemented in Animation Films, 〈The Outcast,2016〉 and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2001〉

한 저*, 이 현 석**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상콘텐츠학과*, **

Han Zhe*, Hyun-Seok Lee**

Dept. of Visual Contents, Graduate School of
Dongseo Univ*, **

요약

중국 도교와 일본 신도는 동아시아 고유의 종교 사상이자 정신세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두 종교는 각각의 독특한 창세신화를 바탕으로 신들의 유래와 인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신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다. 도교는 자연에 삼라만상을 이루는 천사상, 무상한 자연 속에서 장생 할 수 있는 신선사상, 노장자의 도가사상이다. 신도는 모든 물체 안에 영이 존재한다고 믿는 원시자연종교의 형태로써 일본인에게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도교의 신선사상과 신도의 자연 신에서 신인관계의 차이점이 존재하며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교와 신도의 신인관계는 애니메이션에 차용되었으며, 극의 서사와 상상력을 드러내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교와 신도의 신인관계가 연출된 애니메이션 영화를 중심으로 사례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도교와 신도의 신인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도교의 신인관계

도교는 자연중심의 관념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중국인의 고유사상이자 종교이다. 도교의 창세신화는 당시 다양한 종교의 신앙체계와 신들의 기원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태상노군을 우주의 원천으로 삼는데 위의 신앙체계에 따르면 “태상노군은 천지의 근본이요, 만물은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도교 신들의 계보는 체계적인 기록이 미흡하여, 신과 신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도교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혈연관계와는 무관하다.

도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 수련을 통한 득도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득도에 달한 사람이 신의 경지에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득도를 이룬 사람을 성인의 반열로 추앙하고 신격화 하였으며, 자신의 소망을 위해 득도를 이룬 인간이자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종교적 의식을 통해 신과 인간이 연결되고, 권선징악이라는 인간의 윤리적 판단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신인관계는 '신선도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이는 신인관계의 특수성을 의미한다. 동진(東晉)의 갈홍(葛洪)의 〈신선전〉을 보면 도교 신인관계의 독특한 전환 관계 및 전환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인간 세상에서 신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선전 책자이다.

1.2 신도의 신인관계

신도(神道)는 일본의 고유 민족 신앙으로 선조나 자연물에 대한 숭배가 종교로 발전한 것이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신도의 창세신화를 통해 천황이 자연 속에서의 태양에 해당되는 존재로서 천신으로부터 다카야마하라의 통치를 명령 받은 아마테라 스오미카미의 직계후손이라고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주입하였다. 이러한 창세신화는 신인 유래와 신인관계의 구체적인 표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신도 신앙은 도교와는 달리 신에서 인간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

신도의 사회에서는 수많은 신령들이 존재하며, 신령은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신인관계의 법칙이 형성된다. 신도의 신인관계에서 사람이 죽으면 신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인관계의 특수성은 바로 신과 인이 조상과 후손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신의 파수꾼으로 통하는 신과 인간의

교감이 신과 합쳐진 것이다.” 이러한 신인관계는 기본적으로 ‘제사-보호’ 형식으로 서로의 핏줄이 이어져 서로의 관계를 형성한다.

2. 사례분석 방법

앞선 중국 도교와 일본 신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특성을 도출하여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도교와 신도 비교

기준	중국 도교	일본 신도
창세신화	-태상노군은 지상신 -비체계적 신들의 계보	-자연의 숭배가 종교로 발전 -일본인들은 신의 직계후손 -신들의 계보는 인간까지 이어짐
사회생활	-현세의 전환 -다신 신앙 -생활 속에 신이 존재	-제사-보호의 형식 -다신 신앙 -생활 속에 신이 있다
수련방법	도술을 수련하고 득도하여 신선이 된다.	사람이 죽으면 자연히 신령이 된다.
인식구조	우주 생성	자연물
혈연관계	없음(일반적으로 스스로 수련하다)	있음(조상들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

<표 1>의 중국도교와 일본 신도의 신인관계의 특성이 어떻게 애니메이션에 차용되어 연출되었는지 중국 애니메이션 <일인지하, 2016>와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1>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다.

3. 사례 비교 연구

3.1 <일인지하, 2016>의 도교의 신인관계

<그림 1>의 애니메이션 <일인지하>는 중국의 특색적인 도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세계이다. 주요 캐릭터인 이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실의 도교사상을 모태로 한다. 이 캐릭터에서의 이인은 선천적 이인과 후천적 이인으로 존재하며 자신의 몸에 ‘기(炁)’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엄격한 훈련과 체계적인 지도를 거쳐야만 자신의 체내의 ‘기(炁)’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것은 도가 득도하여 신선이 되어가는 사상에 부합하다. <일인지하, 2016>에서 재현된 신(神)에게 제사지내던 의식인 뤼텐대초(羅天大醮)는 도교의 종교의식과 부합한다.



▶▶ 그림 1. <일인지하, 2016>

3.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1>의 신도의 신인관계

<그림 2>와 같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여주인은 자신이 모르는 세계, 즉 신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일본인이 자연종교를 통해 귀신이나 신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종교와 일상생활은 같은 세계를 구축하며 터널을 지나 신의 세계로 서로 연결되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일본인의 종교관인 신도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잘 표현되고 있는 장면이다. 신들은 무신, 새신, '목욕탕 할멈'의 유바바(湯婆婆), 얼굴이 없는 요괴에 이르기까지 신들의 형상을 신비로운 신화적 상상력으로 시각화시키고 있다.



▶▶ 그림 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1>

4. 결론

도교의 신인관계 요소를 적용한 <일인지하> 속 애니메이션의 서사구조는 도교 신인관계라는 외적 표현과 내재적 성격이 성공적으로 혼합되어 창조하였다. 한편, 신도 신인관계의 요소를 적용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애니메이션의 구조는 인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이 두 애니메이션 속 신인관계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상적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사례 분석을 통해, 도교와 신도가 갖는 종교적 의미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서사의 구성에 차용되어 신화적·원시 종교적 상상력으로 시각화 되어 재현되고 있다. 이는 도교와 신도의 지체 사상의 차이점에 따라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조형과 서사의 차이점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 문헌 ■

- [1] 손이평, <도교문화>, 난징대학 출판사, pp.50-59, 2009.
[2] 리쑤, <도교와 신도-중일민족 종교의 핵심 범주의 비교 연구>, 하북학술지, pp.49-54, 1992.